

# 양시교의 고문역에 대한 신후담의 이해

## 『독임당양씨시교고금문역기의』와 『주역고금문전서』를 중심으로

---

방인

경북대학교 명예교수, 한국철학 전공

bangin@knu.ac.kr

---

### I. 머리말

II. 양시교의 『주역고금문전서』에 대한 신후담의 평가

III. 신후담의 고문역에 대한 이해

IV. 『주역고금문전서』의 고문에 대한 고찰

V. 맺음말

---

## I. 머리말

---

하빈(河濱) 신후담(慎後聃, 1702~1761)은 18세기 근기(近畿) 남인(南人)으로서 성호(星湖) 이익(李瀆, 1681~1763)의 제자로 알려진 인물이다. 그는 『서학변(西學辨)』을 저술하여 성리학의 관점에서 서학의 이론을 체계적으로 비판한 인물로 유명하다. 그러나 서학 사상에 편중되었던 신후담 연구는 2000년대 이후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게 된다. 특히 신후담의 저술 중에서도 대략 절반의 분량을 차지하는 것은 『주역』에 관한 저술인데, 신후담의 역학 주저(主著) 『주역상사신편(周易象辭新編)』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주역상사신편』은 신후담의 역학을 대표하는 저술이기는 하지만 신후담의 역학 전모(全貌)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신후담의 다양한 역학 저술들에 대한 개별적 연구가 필요하다. 『독임당양씨시교고금문역기의(讀林塘楊氏時喬古今文易記疑)』는 신후담의 고문역(古文易)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는 저서로서, 신후담 역학사상의 전체 체계를 구성하는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이다.

『독임당양씨시교고금문역기의』는 신후담이 1748년(47세)에 임당(林塘)<sup>1</sup> 양시교(楊時喬, 1531~1609)의 『고금문역(古今文易)』<sup>2</sup>을 읽고 남긴 기의문(記疑文)이다. 여기서 『고금문역』이란 양시교의 저서 『주역고금문전서(周易古今文全書)』를 가리키며, 기의문이란 신후담이 이 책을 읽고 의문점에 대해 기록해 놓은 독서기(讀書記)를 가리킨다.<sup>3</sup> 신후담은 그의 대표적 역학 저술이라

---

\* 이 글은 재단법인 實是學舍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작성됨.

1 양시교의 字는 宜遷이며, 號는 止菴이다. 林塘은 양시교의 고향인 江西 上饒縣에 있는 地名이다. 『周易全書古文序』의 末尾에 “만력, 20년(1592년) 봄에 양시교가 임당 초포에서 쓰다[萬曆二十季春正楊時喬書于林塘樵圃].”라는 附記가 있다. 楊時喬, 『周易古今文全書』 經 8-153, 『四庫全書存目叢書』 經部八(濟南: 齊魯書社, 1997).

2 『古今文易』이라고 한 것은 『周易古今文全書』를 가리킨 것이다.

3 慎後聃, 『河濱先生全集』 책3 内篇(III) 권15, 『讀林塘楊氏時喬古今文易記疑』, 333~371쪽.

고 할 수 있는 『주역상사신편(周易象辭新編)』(1734)과 『주역통의(周易通義)』(1747)를 완성하고, 1748년 이후로는 역학에 대한 각종 평론을 저술하면서, 그의 역학 세계의 외연(外延)을 계속 확장해 나갔다. 양시교의 『주역고금문전서』는 고문역에 대한 신후담의 관심을 촉발했으며, 청년기부터 지녔던 고문역에 대한 지식을 심화해 나가게 된 계기가 되었다. 필자는 이 논문에서 양시교와 신후담의 고문역에 대한 견해가 갖는 의의와 그 한계를 고찰할 것이다.

## II. 양시교의 『주역고금문전서』에 대한 신후담의 평가

신후담이 읽고 평론을 남겼던 양시교의 저서 『주역고금문전서(周易古今文全書)』는 명대 만력(萬曆) 20년(1592년)에 그의 문인 왕기옥(王其玉)에 의하여 간행되었다. 따라서 영락제(永樂帝) 때 1415년에 간행된 『주역전의대전』에는 양시교의 역주(易注)가 수록되어 있지 않다. 그 이후로 청대에 와서 1715년에 이광지(李光地)가 강희제의 어명을 받아 『주역절중(周易折中)』을 출간했지만, 인용성씨(引用姓氏)에 “양씨시교의천지암(楊氏時喬宜遷止庵)”이라고 간략히 언급되어 있을 뿐이고, 실제로 그의 역주는 거의 인용되지 않았다.<sup>4</sup> 신후담은 양시교의 역주가 존중받지 못한 것에 대해 불만을 드러내고, 양시교의 역주에 가치 있는 것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망령되게 둑개 버리거나 지워 없애 버리려고 한 것은 이광지의 식견(識見)이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일찍이 『주역절중』을 보니, 양시교의 설을 취한 것이 극히 적었고, 그 취한 것

4 李光地(저), 신창호·김학목·심의용·윤원현(역주), 『주역절중 1』(서울: 학고방, 2018), 44쪽, “楊氏時喬宜遷止庵”. 양시교는 『주역절중』의 引用姓氏에는 수록되어 있다.

조차도 매우 천박하였다. [양시]교의 설 가운데에는] 그 깊은 이치에 도달한 설도 있었지만, 어느 하나도 『주역절중』에 실리지 않았다. 아! 슬프다! 옛 사람들의 저서에서 깊이 연구하여 스스로 터득한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는 사람의 식견(識見)이 미치지 못해 망령되게 뭉개 버리거나 지워 없애서, 천년이 지나도록 사라져 드러나지 못하게 된다면 어찌 슬픈 일이 아니겠는가? … 이광지가 일시(一時)에 취사선택한 것이 모두 타당하지는 않은 것 같다. 어찌 (그 베린 학설 가운데) 마땅히 취해서 남겨놓아야 하는 것이 없다는 것을 어떻게 알겠는가?<sup>5</sup>

『주역절중』 이후로 1773년에 『사고전서』가 간행되었으나, 이때에도 『주역고금문전서』는 서명(書名)만 기재되었을 뿐이고, 실물은 수록되지 못했다. 다만 1990년대 초에 『사고전서존목총서(四庫全書存目叢書)』 편찬위원회가 만들어지고, 1997년에 제로서사(齊魯書社)에서 간행한 『사고전서존목총서』에 수록됨으로써 『주역고금문전서』는 겨우 빛을 볼 수 있었다.<sup>6</sup> 『사고전서존목총서』의 『주역고금문전서』는 베이징대학교도서관, 중국과학원, 중국국가도서관 등에 흩어져 있는 도서의 부분들을 모아서 편집한 것이다. 반면에 『주역고금문전서』의 완전한 판본은 하버드-옌칭도서관(Harvard-Yenching Library)에 소장되어 있으며, 영인(影印)되어 인터넷으로 열람 가능하다.<sup>7</sup> 『홍

5 楊時喬, 『河濱先生全集』 책3 内篇(III) 권15 『讀林塘楊氏時喬古今文易記疑』, 368~369쪽,  
“嘗見折中取楊說甚少而其所取者乃其淺者 其深到之說一不見載. 噫乎! 古人著書 有深造獨得之見 而後之舉言者 識見不逮 妄加抹去 使千載之下 淚沒不著 岂不惜哉! … 李光地一時取舍 未必盡當 安知其無當取而遺之耶”.

6 『사고전서존목총서』는 『사고전서』에 存目으로만 기록되어 있는 서적을 彙編한 것이다. 『주역고금문전서』(21권)는 『사고전서존목총서』 經部8~9에 수록되어 있다. 四庫全書存目叢書編纂委員會(편), 『四庫全書存目叢書』 經部8, 『周易古今文全書』 권21, 齊魯書社, 1997.

7 하버드-옌칭도서관 『주역고금문전서』 영인([https://iiif.lib.harvard.edu/manifests/view/drs:15322262\\$172i](https://iiif.lib.harvard.edu/manifests/view/drs:15322262$172i)).

정속문현통고(欽定續文獻通考)와 『사고전서총목제요(四庫全書總目提要)』에 『주역고금문전서』에 대한 해제(解題)가 실려 있다. 여기에서는 『사고전서총목제요』의 해제를 소개하기로 한다.

『주역고금문저서』는 명대 양시교의 저서이다. 양시교의 자(字)는 의천(宜遷)이고, 호(號)는 지암(止菴)이다. [강서성(江西省)] 상요(上饒) 지역 출신이다. 명나라 세종(世宗)嘉靖 44년 을축(乙丑) 1565년에 진사(進士)가 되었으며, 관직(官職)이 이부시랑(吏部侍郎)에 이르렀다. 시호(謚號)는 단결(端潔)이며, 사적(事蹟)이 『명사(明史)』『본전(本傳)』에 전한다. 이 책은 『논례(論例)』 2권(二卷), 『고문(古文)』 2권(二卷), 『금문(今文)』 9권(九卷), 『역학계몽(易學啓蒙)』 5권(五卷), 『전역고(傳易考)』 2권(二卷), 부(附) 귀복고(龜卜考) 1권(一卷) 등 모두 6부(六部)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부(部)의 앞 부분에 자서(自序)가 있다. 그 대의(大意)는 고문역과 금문역을 모아서, [육상산(陸象山)과 왕양명(王陽明) 심학(心學)의] 자의적(恣意的) 『역』 해석에서 생기는 오류를 피하고, 오로지 정주(程朱)를 종주(宗主)로 삼았다는 데 있다. 그런데 비록 고금문을 모두 아우른 것처럼 말했지만, 고문에서 발명(發明)한 바는 적고, 금문에서 새롭게 밝힌 것은 상세하다. 그렇지만 고문과 금문을 상호 참조했으며, 비록 번잡하고 복잡한 점은 있지만 대의를 해치지는 않았다. 그러나 『주역』의 고문본이라는 것은 원래 상고(詳考)할 자료가 없다. 고문자료로는 송대에 곽충서(郭忠恕)의 『한간(汗簡)』을 들 수 있지만, 거기에서 인용한 고대의 『주역』 글자는 어디에서 유래된 것인지를 밝혀낼 수 없다. 양시교의 이 책은 다시 전서(篆書)와 주문(籀文)으로 바꾸어 제멋대로 넣어서 연결하고, 이따금 잘못된 글자[訛字]를 몰래 집어넣기도 하였으니, 두찬(杜撰)의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sup>8</sup>

8 『四庫全書總目提要』, “明楊時喬撰。時喬字宜遷 號止菴 上饒人。嘉靖乙丑進士。官至吏部侍郎。謚端潔。事蹟具明史本傳。此書凡分六部 曰論例二卷 古文二卷 今文九卷 易學啓蒙五卷 傳易考二卷 附龜卜考一卷。每部皆有自序。其大意在薈萃古今以辟心學說易之謬 所宗惟在程 朱。雖兼

위의 해제에서 알 수 있듯이, 『사고제요』에서는 양시교가 고문본 『주역』을 복원하려고 시도한 것에 대해 비판적으로 평가했다. 그리고 『주역고금문전서』에 대해서도 두찬(杜撰)의 혐의를 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양시교의 『주역고금문전서』에 대한 비판은 『사고제요』 이전에도 있었다. 고염무(顧炎武, 1613~1682)는 『일지록(日知錄)』에서 “요즘 사람들이 양시교가 『주역』의 고문을 각판(刻版)한 것을 두루 믿는 경향이 있으나, 후인(後人)들이 임의로 만든 것이므로, 반드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고 했다.<sup>9</sup> 고염무와 마찬가지로 송대 이후로 고문자를 연구한 문자학자들은 대부분 『설문해자』 이외에 진정한 고문이 전해 내려왔다는 것을 믿지 못했다. 그들은 『한간』에서 수집한 고문자 재료가 후인들이 대부분 보지 못하던 것이고, 그 고문자도 청동기 명문(銘文)에서 쓰여진 소위 진고문(眞古文)의 글자체와 달랐기 때문에 『한간』을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고염무 혹은 『사고전서』의 비평은 고문자에 대한 지식이 충분히 축적되지 않았던 시기에 제기되었던 관점이기 때문에 이들의 판단이 반드시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다. 청대 말기에 손이양(孫詒讓, 1848~1908) 등의 학자들이 갑골문과 금문(金文)의 자형(字形)을 연구하면서, 곽충서(郭忠恕)의 『한간』과 하송(夏竦)의 『고문사성운(古文四聲韻)』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리고 20세기 초 이후로 출토문헌이 대량으로 발굴되고, 『한간』과 『고문사성운』에 전초(傳抄)된 고문자의 자형(字形)을 이용하여 출토문헌의 고석(考釋)의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잇달아 생겨났다. 특히 근래에 출토된 전국시대 중산국(中山國) 중산왕(中山王)과 관련된

---

稱古今文 而所發明者古文略而今文詳. 中多互見其義 故間有繁複 不害宏旨. 然周易古文本無可考 郭忠恕汗簡所引古周易諸字 已不能究所自來. 時喬此本更古篆籀文 隨意填綴 往往竄入訛字 殊不免杜撰之訾”.

9 顧炎武(印子), 「五經古文」, 顧炎武(저), 黃汝成(집성), 『日知錄集釋(中)』(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6), 1217쪽, “今有廣信楊時喬所刻周易古文 恐亦後人以意爲之 不必有所受也”.

기물(器物)에 쓰여진 고문자에 대한 고석이 『한간』을 참고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sup>10</sup> 『한간』의 학술적 가치가 재평가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이제는 고문자에 대한 지식이 충분히 축적되지 않았던 시기에 제기되었던 회의적 관점을 일단 거두어들이고, 중립적 관점에서 다시 고찰할 필요가 있다.

### III. 신후담의 고문역에 대한 이해

조선에서 고경(古經)과 고제(古制)의 복원을 중요한 과제로 삼고, 고문을 중시했던 것은 남인의 전통이었다.<sup>11</sup> 당대(當代)에 남인의 대표적 인물이었던 미수(眉叟) 허목(許穆, 1596~1682)은 전초(傳抄) 고문경전(古文經典) 및 사주(史籀)의 주문(籀文), 『설문해자』의 고문(古文) 등에 특별한 관심을 두고 고문자를 수집했으며, 『고문운부(古文韻部)』<sup>12</sup>·『고문운율(古文韻律)』<sup>13</sup>·『금석운부(金石韻府)』<sup>14</sup> 등을 초사(抄寫)해서, 수사본(手寫本) 자전(字典)을 편찬하기도

10 천웨이잔·탕위밍(저), 강윤옥(역), 『중국고문학의 이해』(서울: 현학사, 2005), 238쪽.

11 윤성훈, 「다산 정약용 행초서의 특징」, 『다산학』 43(2023), 160쪽.

12 『古文韻部』는 明末의 朱雲이 편찬한 『고문운부』를 許穆이 抄寫하여 재구성한 稿本이다. 그 러므로 허목의 저작으로 볼 수 없다. 윤성훈, 「미수 허목 수고본 전서 자전 기초 연구」, 『대동 문화연구』 101(2018), 146쪽.

13 『古文韻律』은 허목이 고문자를 운율의 순서에 따라 필사하여 편집한 서체집이며, 체계적인 자전은 아니다. 『고문운율』은 『금석운부』와 같은 단일 서적의 발췌본이 아니고, 허목이 고문자에 관심을 갖고 꾸준히 자료를 모으며 틈틈이 편찬한 자료집 성격이 강한 자전이다. 위의 논문, 155쪽.

14 『金石韻府』는 明末의 朱雲이 편찬한 고문자 자전이며, 5권 5책의 목판본으로서 明 崇禎 13년(1640)에 간행되었다. 윤성훈, 『미수 허목 고문서예 연구』(서울: 서울대학교, 2019), 120쪽. 『汗簡』 등 宋代 아래 중국 고문자 연구 성과를 정리하며 각 자형의 전거를 밝혔다. 같은 책, 203쪽.



그림1-허목의  
한간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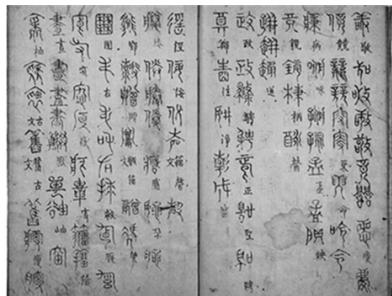


그림2-허목의『금석운부』수사본



그림3-허목의  
『고문운부』수사본

했다.<sup>15</sup> 이처럼 선진(先秦)의 고문을 송상하는 남인의 학풍은 식산(息山) 이만부(李滿敷, 1664~1732)와 신후담에게로 이어졌다.

신후담이 양시교의 『주역고금문전서』에 대해 보인 관심은 그의 선진문자(先秦文字)에 대한 탐구의 연장선에 놓여 있다.<sup>16</sup> 『하빈선생연보』의 1751년(50세)조에 따르면, 신후담은 젊었을 때 선진문자를 보고, 여기에 힘을 쏟았다고 한다.<sup>17</sup> 이러한 언급으로 보아 신후담은 『독임당양씨시교고금문역기의』를 저술했던 1748년(47세)보다 이전에 이미 선진문자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하빈선생연보』에서 젊었을 때라고 한 것은 언제를 가리키는 것이며, 신후담이 보았다는 선진문자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 『하빈선생연보』에 따르면, 신후담은 1732년(31세)에 27가(家)에 관한 평론인 『잡서수필(雜書隨筆)』을 저술했다고 한다. 그런데 『잡서수필』에서 서술된 27가(家)에는 『급총서(汲冢書)』·『목천자전

15 한국고전번역원 웹사이트(<https://www.itkc.or.kr>) 참조.

16 강병수, 「하빈 신후담의 역학연구와 이해」, 『한국사상사학』 16(2001), 72쪽.

17 강병수, 『하빈 신후담의 학문세계』(서울: 다흘 미디어, 2021), 356쪽.

(穆天子傳)』·『죽서기년(竹書紀年)』등이 포함되어 있다.<sup>18</sup> 『급총서』란 서진(西晉) 무제(武帝) 시기인 태강(太康) 2년(281년)에 하남(河南)의 급군(汲郡) 사람 부준(不準)이 전국시대 위양왕(魏襄王)의 무덤에서 발굴한 죽간을 가리킨다. 그런데 『급총서』에는 『목천자전』·『죽서기년』 등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 중에서 원본 『죽서기년』은 송대(宋代) 이전에 상당 부분 유실되었다. 금본(今本) 『죽서기년』이 사부총간(四部叢刊)에 포함되어 있으나, 왕국유(王國維, 1877~1927)는 이것을 후대인의 위작(僞作)으로 의심했다. 『급총서』 가운데 유일하게 지금까지 전해지는 것은 『목천자전』이며, 사부총간에 포함되어 있다. 신후담은 『잡서수필』에서 『급총주서』(즉 『급총서』)·『목천자전』·『죽서기년』 등에 대해 모두 서술하고 있다. 『급총서』는 전국시대의 고문에 속하는 것이 틀림없지만, 대부분 유실(遺失)되었으며, 유일하게 『목천자전』이 전해지고 있다.<sup>19</sup> 그러나 현존하는 『목천자전』도 과두문자(蝌蚪文字)로 적혀 있는 것이 아니라, 관청에서 과두문자로 쓰여진 죽간을 정리하여 다시 예서(隸書)로 옮겨 적은 것이다. 따라서 신후담이 『목천자전』을 읽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으나, 설령 읽었다고 하더라도 선진 고문인 과두문자로 읽은 것은 아니다.

고문역과 관련된 신후담의 언급은 1727년(26세)에 저술한 『독호쌍호계몽의전지의(讀胡雙湖啓蒙翼傳識疑)』에도 나온다. 신후담에 따르면, 정이(程頤)와 주희(朱熹)의 역학은 왕필(王弼)과 한강백(韓康伯)에서 나온 것이 많고, 또 왕필과 한강백은 비직(費直)의 고문역을 계승했다. 따라서 역학의 정통적 계보는 비직으로부터 시작한다.<sup>20</sup> 고문역이란 고문으로 쓰여진 『역경』을 가리키는데, 금문으로 쓰여진 『역경』과 대비되는 용어로 쓰이고 있다. 서한 시대 초

18 『汲冢書』를 『汲冢周書』라고도 한다. 신후담의 『雜書隨筆』에는 『汲冢周書』로 언급되어 있다.

19 최영애, 『한자학강의』(서울: 통나무, 2006), 122쪽.

20 憲後聃, 『河濱先生文集』內篇 권9, 『讀胡雙湖啓蒙翼傳識疑』傳註, “古易辯論 所論亦正 後得王韓註觀之 其說多有可取 程朱易說亦多出於此 不可過斥”.

기에는 예서(隸書)가 널리 쓰여서 고문에 대해서 알지 못했고, 고문이라는 용어 자체가 없었다. 그런데 서한의 경제(景帝, 재위 기원전 157~기원전 141) 시기에 노(魯)의 영지에 봉해진 경제의 아들 공왕(共王 혹은 恭王, 기원전 155~기원전 129)이 공자의 옛 집을 허물었는데, 그 벽에서 수십 편의 경전이 나왔다. 이것을 벽중서(壁中書)라고 하는데, 진시황의 분서(焚書)를 피하기 위해 숨겨 놓았던 것이었다. 이 책들은 육국문자(六國文字)<sup>21</sup>로 쓰여 있었는데, 그 자형(字形)이 마치 올챙이 모양처럼 생겼다고 해서, 과두(蝌蚪) 문자라고 불렸다. 그런데 그 문자가 진(秦)의 대전(大篆)이나 소전(小篆)과 다르고 또 한대의 예서(隸書)와도 달라서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것을 상고시대의 문자로 오해해서 고문이라고 불렀다.

서한 시대에는 금문과 고문의 두 가지 경학 계통이 있었는데, 전자는 관방역학이 되었고 후자는 민간역학이 되었다. 비직을 대표로 하는 민간역학은 고문경학의 계통에 속하며, 비직이 전수한 고문역경은 궁중에 비장(秘藏)되어 있던 전국시대의 육국문자였다.<sup>22</sup> 비직은 서한(西漢)의 성제(成帝, 재위 기원전 33~기원전 7) 혹은 애제(哀帝, 재위 기원전 7~기원전 1) 시기의 인물이다. 성제(成帝, 재위 기원전 33~기원전 7) 때 유향(劉向, 기원전 77~기원전 6)이 시수(施讎)·맹희(孟喜)·양구하(梁丘賀) 등이 전수한 금문과 비직의 고문을 궁중에 비장되어 있는 고문『주역』과 대조해 보았는데,<sup>23</sup> 금문에는 “무구(无咎)”·“회망(悔亡)” 등의 글자가 없었고, 오로지 비직의『주역』만이 궁중의 비부(秘府)에 소장되어 있던 중고문(中古文)<sup>24</sup>과 일치했다. 반면에 맹희와 경방(京房)으

21 六國이란 전국시대에 秦나라를 제외한 나머지 燕·趙·魏·韓·齊·楚의 여섯 나라를 가리킨다.

22 주백곤,『역학철학사 1』(서울: 소명출판, 2012), 264~265쪽.

23 여기서 ‘中’은 中期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漢代에 皇宮에 소장된 古文 經籍을 가리키는 명칭이다. 유명춘·강학위·낙위현(저), 심경호(역),『주역철학사』(서울: 예문서원, 1994), 236쪽.

24 中古文은 漢代에 조정의 秘府에 收藏되어 있던 古文으로 쓰인 經籍을 가리킨다.『漢書·藝文志』에 “유향이 중고문으로써 施讎·孟喜·梁丘賀가 전수한 역경을 校勘하였다[劉向 以中古文

로 대표되는 관방역학은 금문경학에 속하고, 예서(隸書)로 쓰여져 있었다. 금문『주역』은 서한 시대 초기에 전하(田何)가 전했으며, 주왕손(周王孫)·정관(丁寬)·전왕손(田王孫)을 거쳐 맹희(孟喜)·초연수(焦延壽)·경방(京房, 기원전 77~기원전 37)에게로 전승되었다. 그런데 마왕퇴 3호 한묘(漢墓)에서 출토된 백서본(帛書本)『주역』은 바로 전하로부터 전승된 금문역경일 가능성이 높다.<sup>25</sup> 왜냐하면 백서본『주역』은 예서로 쓰여 있을 뿐 아니라, 백서본『주역』이 출토된 마왕퇴 3호 한묘(漢墓)의 조성된 기원전 168년은 전하가 활동했던 혜제(惠帝) 유영(劉盈, 기원전 211~기원전 188) 시기로부터 그렇게 멀지 않기 때문이다.<sup>26</sup>

서한 중엽 이후로 금문경학은 점차 쇠퇴했고, 동한 말엽에는 마옹(馬融, 79~166)이 등장하여 비씨의 고문역을 전공했다. 마옹 이후로는 고문역이 금문역을 압도하게 되었다. 마옹은 비씨의 고문역경을 정현(鄭玄, 127~200)에게 전수했다. 정현은 금문역과 고문역을 절충했으나, 그가 종주(宗主)로 삼은 것은 고문역이었다.<sup>27</sup> 정현은 비직의 고문본을 계승하여, 「단전」과 「상

---

易經校施 孟 梁丘經.]”라고 했고, 頭師古의 注에 “中이란 天子의 책을 가리킨다. 中이라고 한 것은 바깥으로부터 구별된다는 뜻이다[中者 天子之書也. 言中 以別於外耳].”라고 했다.

25 田何는 서한의 제2대 황제인 惠帝 劉盈(기원전 211~기원전 188) 시기의 역학자이다. 惠帝 가 직접 찾아가 수업을 들었다고 한다. 제자로 王同·丁寬·服生 등이 있었으며, 정관의 역학은 다시 施讎·孟喜·梁丘賀에게 전해졌다.

26 劉大鈞은 帛本『주역』이 한초에 田何가 전한 今文易本이라고 주장했다. 田何가 전한 금문역은 周王孫·丁寬·田王孫·孟喜·焦延壽·京房으로 전승되었다. 마왕퇴본은 마왕퇴 3호 漢墓로부터 나왔는데, 그 조성 시기는 西漢의 제5대 황제 漢文帝(재위 기원전 180~기원전 157) 劉恒의 재위 시기인 기원전 168년이다. 따라서 帛本『주역』이抄寫된 시기는 한문제의 시기이거나 혹은 그 이전으로 추정된다. 田何는 서한의 제2대 황제인 惠帝 劉盈(재위 기원전 195~기원전 188) 시기의 인물이며, 그 시기는 마왕퇴 3호 漱墓가 조성된 기원전 168년으로부터 그렇게 멀지 않다. 이것은 한초의 傳易이 “本於田何一家”라는 사서의 기록과 부합한다. 劉大鈞, 『周易概論』(四川: 巴蜀書社, 2008), 230~234쪽.

27 임충군(저), 손홍철·임해순(역), 『정현의 주역』(서울: 예문서원, 2021), 369쪽.

전」을 경문에 혼합하고, 「단전」과 「상전」의 문장 앞에다가 “단왈(彖曰)”과 “상왈(象曰)”이라는 표지를 하여, 경문과 구분했다. 즉 경(經)과 전(傳)을 이어붙여 나란히 배치했는데, 이것을 분전부경(分傳附經)이라고 한다. 분전부경은 고경(古經)의 체계를 훼손했다는 많은 비난을 일으켰다. 호일계(胡一桂, 1247~?)는 『주역본의계몽익전(周易本義啓蒙翼傳)』에서 정강성(鄭康成)의 무리가 비직에 동조하고, 왕필이 전승함으로써 마침내 대란(大亂)이 일어나고 말았다고 맹렬히 비난했다. 그리고 양시교도 『주역고금문전서』에서 비직의 분전부경으로 말미암아 고역(古易)이 망해 버리고 말았다고 개탄했다. 즉, 호일계와 양시교는 분전부경이 비직본 『주역』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주진(朱震, ?~1138)의 『한상역전(漢上易傳)』의 주장이 맞다면, 분전부경은 비직이 아니라 정강성으로부터 시작되었으므로, 분전부경의 책임을 비직에게 돌리는 것은 부당한 것이 된다. 호일계의 『주역본의계몽익전』과 양시교의 『주역고금문전서』는 모두 신후담이 읽은 책들이기 때문에 신후담은 이러한 논란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신후담은 『독호쌍호계몽익전지의』에서 비직에 대한 “과도한 배척은 옳지 않다[不可過斥].”고 말했다. 왜냐하면 통행본 『주역』은 왕필본에서 왔고, 왕필본 『주역』은 비직으로부터 왔기 때문이다.<sup>28</sup> 신후담은 『제가논편차(諸家論篇次)』에서 비직의 분전부경이 매우 참람(僭濫)한 행위였다는 것을 인정했지만, 그것은 경(經)과 전(傳)을 서로 가깝게 붙여 놓음으로써 학자들이 공부할 때 편리하도록 돋기 위한 것이었다고 변호했다.

비직(費直)과 왕필(王弼)이 『역경』에 「단전(彖傳)」과 「상전(象傳)」을 배합한 것은

28 慎後聃, 『河濱先生全集』책3 内篇(III) 권15, 『讀胡雙湖啓蒙翼傳識疑』, 214~215쪽, “古易辯論 所論亦正 後得王韓註觀之 其說多有可取 程朱易說亦多出於此 不可過斥”.

그 일이 참람하고 혼란된 일임을 알지 못하고, 다만 경(經)과 전(傳)이 서로 근접해 있는 것이 공부하는 학자들에게 편리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이것이 『정전(程傳)』에서 이 편차(編次)를 따른 이유이다. 조열지(晁說之)와 여조겸(呂祖謙)에 이르러 경(經)과 전(傳)이 뒤섞이는 것을 걱정하였다. 그래서 구별하여 차이를 두어 고본(古本)을 따르니, 역의(易義)도 또한 갖추어지게 되었다. 이것이 또 주자의 『주역본의』가 고본을 취한 이유이다. 『주역전의대전』이 『정전(程傳)』을 따라 금역(今易)을 취하고, 『주역절중』이 『주역본의』를 따라 고본을 취한 것은 모두 안 될 것 이 없다.<sup>29</sup>

『주역전의대전』에서는 건괘(乾卦)에서는 괘사(卦辭)-효사(爻辭)-「단전(彖傳)」-「대상전(大象傳)」-「소상전(小象傳)」-「문언전(文言傳)」의 순서로 배치했으며, 곤괘(坤卦) 이하(以下)에서는 괘사-「단전」-「대상전」-효사-「소상전」-「문언전」을 나누어 붙였다. 그리고 준괘(屯卦) 이하에서는 「문언전」을 제외하면 곤괘(坤卦)의 체제를 따랐다.<sup>30</sup> 반면에 『주역절중』에서는 괘사·효사·「단전」·「대상전」·「소상전」을 하나의 괘에 통합한 것이 아니라, [괘사-효사]를 묶어 64괘로 나열하고, 그 뒤에 「단전」만을 뽑아내어 64괘로 나열하고, 다시 [대상전-소상전]을 묶어서 64괘로 나열했다. 따라서 64괘에 대한 설명이 모두 세 차례 이루어지게 된다.<sup>31</sup>

그런데 신후담은 『주역상사신편』에서 『주역전의대전』의 방식을 따르지 않았다. 신후담은 비직이 분전부경한 것을 고본의 원형을 훼손한 행위라고 비

29 慎後聃, 『河濱先生全集』책3 内篇(II) 권15, “費王之合彖象於經者 未見其爲僭亂 而經傳相近 便於學者之尋省 此程傳所以因之也。至於晁呂 恐其傳與經混 而別以異之 以從古本 則於義亦得此又朱子本義之所以取也。大全從程傳而取今易 折中從本義而取古本 俱無不可”.

30 김병애, 『하빈 신후담 『주역상사신편』』 상경 역주』(서울: 고려대학교, 2016), 16쪽.

31 李光地(찬), 楊軍(집교), 『周易折中(上中下)』(北京: 中華書局, 2022).

난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직과 왕필이 건괘(乾卦)에서 취한 배열 방식을 표준으로 삼았다. 그것은 괘사(卦辭)와 효사(爻辭)의 아래에 「단전」과 「상전」을 차례대로 배치하는 방식이다. 그는 건괘(乾卦)의 방식을 64괘 전체에 적용하여, [괘사-효사]·「단전」·「대상전」·「소상전」의 순서로 일관되게 배열했다.<sup>32</sup> 신후담은 『주역상사신편』의 체제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주역』은 상경(上經)과 하경(下經)으로 구분하니, 공자(孔子)가 지은 전(傳) 10편을 합하여 모두 12편이다. 비직(費直)과 왕필(王弼)이 「단전」·「상전」·「문언전」을 경문(經文)에 연결하고, 「계사전」 이하(以下)로는 별행(別行)하였는데, 정자(程子)도 이를 따랐다. 다만 비직과 왕필은 건괘(乾卦)에 대해서만 「단전」·「상전」을 괘사(卦辭)와 효사(爻辭)의 아래에 기록하였는데, 그 순서가 진실로 바르다. 곤괘(坤卦) 이하에서는 괘사 아래에 「단전」과 「대상전」을 기록하고, 효사는 또 효마다 「상전」을 붙여서 경(經)과 전(傳)이 서로 섞였으나, 지금 개정하여 한결같이 건괘(乾卦)의 예대로 하였다.<sup>33</sup>

이러한 배열 순서는 분전부경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주역절중』과 일치하지만, 차이점은 신후담은 이 모든 요소를 하나의 괘에 모두 통합하였지만 『주역절중』에서는 [괘사-효사]·「단전」·「대상전-소상전」의 세 단위로 묶어서, 각각 독립시켰다는 점이다. 따라서 『주역상사신편』의 통합적 구성방식은 『주역절중』에서 [괘사-효사]·「단전」·「대상전-소상전」의 세 단위를 분리시킨 것과는

32 김병애, 앞의 책, 17쪽.

33 『河濱先生全集』, 『周易象辭新編』 권5, 4쪽, “分爲上下經 并孔子所作之傳十篇 凡十二篇 費直 王弼 以象象文言傳 連經文 而繫辭以下 則別行 程子因之 但費王於乾卦 則錄象象傳 於卦辭爻辭 之下 其序固正 坤卦以下 則卦辭下 卽錄象傳 大象傳 爻辭又逐爻而附象傳 經與傳相雜 今改正 一依乾卦之例”.

다르다. 신후담은 비직과 왕필이 건괘(乾卦)에서 배열한 순서를 따른 것은 그 방식이 “매우 올바르다[其序固正].”고 평가했기 때문이다.

#### IV. 『주역고금문전서』의 고문에 대한 고찰

신후담의 『독임당양씨시교고금문역기의』의 기본 성격은 양시교의 『주역 고금문전서』에 대한 비평에 있다. 여기에서 본질적 문제는 『주역고금문전서』에서 쓰인 고문자가 위작(僞作)된 문자인지 아니면 어떤 실체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에 있다. 앞서 『사고전서총목제요』에서는 양시교의 『주역 고금문전서』에 대해서는 통행본 『주역』의 문자를 전서(篆書)와 주문(籀文)으로 제멋대로 바꾸어 넣고, 이따금 잘못된 글자[訛字]를 몰래 집어 넣기도 했으니, 두찬(杜撰)의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고 비난했다. 반면에 신후담은 양시교의 고문자에 대한 설도 어떤 내력(來歷)이 있는 것이라고 보았다. 즉, 팔괘의 획괘(畫卦)는 조자(造字)의 시초(始初)였으며, 팔괘의 괘형(卦形)과 고문(古文)의 전자(篆字)는 서로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sup>34</sup> 신후담은 『독임당양씨시교고금문역기의』에서 『주역고금문전서』에 나오는 64괘의 괘명(卦名)의 고문 자형(字形)을 소개했다.<sup>35</sup> 다음은 『주역고금문전서』에 흩어져 있는 64괘의 괘명의 고문 자형을 집자(集字)한 것이다.<sup>36</sup>

34 慎後聃, 『讀林塘楊氏時喬古今文易記疑』, 335쪽, “愚嘗疑畫卦爲造字之始 論於通義矣. 今易楊說如此 試考古文篆字 則天作☰ 地作☷ 雷作☳ 風作☴ 水作☵ 火作☲ 山作☶ 潭作☵ 與卦體恰相似 楊說蓋有來歷”.

35 慎後聃, 『河濱先生全集』책3 内篇(III) 권15, 『讀林塘楊氏時喬古今文易記疑』, 350~366쪽.

36 四庫全書存目叢書編纂委員會(엮), 『四庫全書存目叢書』經部8, 『周易古今文全書』권2 經8(濟南: 齊魯書社, 1997), 210~241쪽.





그림4-『周易古今文全書』의 64卦 卦名의 古文 字形

신후담은 『주역고금문전서』에 나오는 64괘의 괘명(卦名)의 고문 자형(字形)을 소개하고, 그 말미에 다음과 같은 안설(案說)을 덧붙였다.

[안(案)] 이것은 고문(古文)의 전서(篆書)를 쓰는 법에 의거하여, 괘명(卦名)을 해석한 것이다. 비록 견강부회한 곳이 없지 않지만, 그 전법(篆法)은 중요한 것을 계발(啓發)해 주는 바가 많으며, 괘상(卦象)에 매우 가깝다. 따라서 『주역』을 배우는 학자라면 이것을 고찰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여기에 대략적인 것을 기록하여 공부하는 자가 참고하도록 하였다.<sup>37</sup>

37 慎後聃, 『讀林塘楊氏時喬古今文易記疑』, 366쪽, “案此據古文篆法 以釋名卦之字 雖不無牽合”

이처럼 신후담은 양시교의 고문역이 나름대로 근거도 갖추었을 뿐 아니라, 『역』을 공부하는 학자라면 반드시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았다. 그렇다면 신후담의 이러한 주장이 의미와 가치가 있는 주장인지를 따져 보기 위해서는 양시교의 『주역고금문전서』에서 사용된 고문 자형이 위작(僞作)인지 아니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를 따져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의 시비(是非)를 가리기 위해서는 양시교의 고문 자형들을 현존하는 고문 자료들과 대조해서 유사성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한다. 여기서 필자가 검토할 고문자료는 곽충서의 『한간』, 허신의 『설문해자』, 『상해박물관장전국초죽서(上海博物館藏戰國楚竹書)』, 『주역』의 세 종류이다.

첫째, 『사고전서총목제요』에서는 곽충서의 『한간』에서 사용된 고문자가 어디에서 유래되었는지를 알 수 없다고 하고, 이어서 양시교에 대해서도 두 찬(杜撰)의 혐의가 있다고 했다. 이것은 마치 양시교의 『주역고금문전서』가 곽충서의 『한간』에 나오는 고문자를 활용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즉, 전자가 후자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후자가 믿을 수 없는 것이라면, 전자도 역시 믿을 수 없다는 논리처럼 읽힌다. 그러나 『사고제요』에서는 『주역고금문전서』가 『한간』의 고문자료에 의존하고 있다는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양시교의 『주역고금문전서』에서 쓰인 고문 자형과 『한간』에서 쓰인 고문 자형을 비교함으로써 과연 전자가 후자에 의존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둘째, 동한시대 허신의 『설문해자』에서 사용된 고문자와 양시교의 『주역고금문전서』에서 사용된 고문자 사이의 관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설문해자』는 동한의 화제(和帝) 영원(永元) 12년(100)에 완성되고, 그로부터 21년 후인 안제(安帝) 건광(建光) 원년(元年)인 121년에 아들 허충(許沖)이 조정에

---

處而亦多所發要之篆法 與卦象甚近 學易者 不可不考 謹錄其略以備參玩”.

바친 책이다. 『설문해자』는 지금까지 보존된 모든 자서(字書) 가운데 가장 많은 고형(古形)과 고의(古義)가 수록되어 있다. 허신의 시대에는 정(鼎)과 이(彝) 등의 명문(銘文)을 포함해서 여러 종류의 출토 문헌이 발견되었는데, 허신은 이들 고문자료에 보이는 주문(籀文)·고문(古文)·소전(小篆)·혹체(或體)<sup>38</sup> 등을 수집하고, 이를 통하여 글자의 자원(字源)과 자형(字形)을 분석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허신은 갑골문을 보지 못했음은 물론이고, 상대(商代)와 서주(西周) 시기의 금문(金文) 자형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오류를 피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설문해자』(이하 『설문』)는 오늘날에도 고문자를 고석(考釋)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열쇠이자 통로가 되는 문헌이다.<sup>39</sup>

『설문』에 기록된 고문이 사용되었던 시기에 관해서는 상주(商周)시대 혹은 서주시대 청동기 명문(銘文)으로 보는 견해와 전국시대의 문자로 보는 견해가 있다. 첫번째 견해의 대표자로는 단옥재(段玉裁)가 있는데, 그는 설문 고문의 시대를 하상주(夏商周) 삼대(三代)에까지 소급시키고 있다. 그리고 육경은 고문으로 적혀 있는 데 소위 고문은 상주시대 청동기 명문과 같은 것이라고 주장했다.<sup>40</sup> 반면에 고문을 전국문자로 보는 가장 대표적인 학자는 오대징(吳大澂)과 왕국유(王國維)이다.<sup>41</sup> 오대징은 『설문』의 고문(古文)과 주문(籀文)은 주대 말기 칠국(七國)에서 사용한 전국문자라는 견해를 제시했다.<sup>42</sup> 왕국

38 或體는 許慎이 당시에 사용되던 異體字를 수집한 것이다. 허신은 해당 글자에 다른 이 존재하는 경우, 字形의 끝부분에 古文·籀文·或體·俗字·奇字 및 秦刻石 등의 字形을 수록해 놓았는데 이렇게 수록된 1,163자의 重文은 한자의 異體字 자형의 연구와 변천 과정을 연구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윤창준, 「설문해자 或體 중의 別字類 고찰」, 『중국학연구』 31(2005), 149~150쪽.

39 김혁, 「古文字 研究에 있어서 『說文解字』의 가치: 甲骨文字考釋을 중심으로」, 『중국언어연구』 103(2022), 388쪽.

40 오제중, 「청대의 『설문해자』 고문 연구에 관한 고찰」, 『중국언어연구』 33(2010), 295쪽.

41 서진현, 「『설문해자』 고문의 자형 비교를 통한 사용시기 고찰」, 『전지인문학』 29(2020), 54쪽.

42 위의 논문, 54~55쪽.

유도『설문』에 보이는 고문은 바로 공자의 고택(故宅)에서 발견된 경서에 적힌 문자로서 주대 말 이후로 전국시대에 진나라를 제외한 육국(六國)에서 사용했던 문자라고 주장했다. 따라서『설문』에 수록된 고문은 허신이 생각했던 것처럼, 서주시대의 청동기 명문(銘文)이 아니고, 전국시대의 문자가 된다.<sup>43</sup> 오늘날에는 단옥재의 설보다는 왕국유의 설이 더 지지를 받고 있다.<sup>44</sup> 그런데 『설문해자』의 고문은 육국문자 중에서도 특히 초계간백(楚系簡帛)의 자형과 유사한 것이 대부분이고, 다른 계통의 문자는 매우 적다.<sup>45</sup>

셋째, 『상해박물관장전국초죽서(上海博物館藏戰國楚竹書) 주역』은 골동품 시장에서 구입하여 상해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죽간(竹簡)으로서, 『상박초간(上博楚簡) 주역』, 혹은 『상박주역(上博周易)』으로도 불린다. 이 죽간은 현존하는 『주역』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인 전국시대의 죽간으로서, 대략 기원전 255년 ± 65년에 형성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만약 이러한 연대 추정이 맞다면, 상박본『주역』은 허신의『설문해자』보다도 더 오래되고, 비직보다도 훨씬 이전에 존재했던 텍스트가 된다. 왜냐하면 허신의『설문해자』는 동한시대 허신의 저작으로 화제(和帝) 영원(永元) 12년(A.D.100)에 완성되었고, 비직은 전한의 성제(成帝, 재위 기원전 33~기원전 7) 혹은 애제(哀帝, 재위 기원전 7~기원전 1) 시기의 인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상박주역』은 유교 경전으로 확고하게 정착되기 이전의 전국시대『주역』의 특징을 실물로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sup>46</sup> 『상박주역』에는 모두 34괘의 죽간 자료가 잔존(殘存)해 있는데,<sup>47</sup> 이 죽간에서 쓰여진 괘명(卦名)의 자형(字形)을

43 오제중, 앞의 논문, 290쪽.

44 위의 논문, 312쪽.

45 서진현, 앞의 논문, 71쪽.

46 馬承源(주편), 『上海博物館藏戰國楚竹書(三)』(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3).

47 『상박주역』에 殘存한 34괘의 괘명을 傳來本 주역의 괘명을 기준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4)蒙/尨, (5)需, (6)訟, (7)師/巾, (8)比, (14)大有, (15)謙/謙(馬王堆), (16)豫, (17)隨, (18)

양시교의 『주역고금문전서』와 대조해 봄으로써, 과연 양시교의 고문역이 전국시대 초나라 문자로 서사된 『주역』에 얼마나 접근하고 있는지를 검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양시교의 『주역고금문전서』에는 괘명뿐 아니라, 괘사와 효사 등에 나오는 문자까지 모두 고문으로 구성했지만, 그것을 모두 검토하는 것은 효과적인 방법이 못 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일단 여기에서는 괘명에 한정해서, 고문 자형을 검토하고자 한다. 그런데 앞서 소개한 세 종류의 고문자료에 64괘의 고문 자형이 모두 나오는 것이 아니고, 『상박주역』에는 34괘가 나오고, 광충서의 『한간』에도 오직 일부 자형만 나온다. 여기에서는 지면의 제한도 있으므로, 『주역고금문전서』, 『한간』, 『상박주역』, 『설문해자』 등 네 종류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괘명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네 종류의 고문자료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고 확인 가능한 괘명은 모두 16괘로서, 몽(蒙)·수(需)·송(讼)·사(師)·비(比)·겸(謙)·예(豫)·수(隨)·복(復)·함(咸)·항(恒)·돈(遯)·곤(困)·정(井)·풍(豐)·미제(未濟) 등이다.

### 1. 제4괘 몽(蒙)

양시교의 고문역의 몽(蒙)과 정확히 일치하는 자형은 발견되지 않는다.<sup>48</sup> 『한간』의 자형과도 유사성이 적다. 『상박주역』에서는 몽(蒙)의 가차자(假借字) ‘몽(尨)’으로 쓰였다. ‘몽(尨)’은 털이 많은 삼살개를 뜻하는 글자이다. 『경전석문』에서 “몽(尨)의 반절음(反切音)은 막강(莫江)이다. 이 글자의 음(音)은

---

蠶, (24)復, (25)无妄, (26)大畜, (27)頤, (31)咸, (32)恒, (33)遯, (38)睽, (39)蹇, (40)解, (43)夬, (44)姤, (45)萃, (47)困, (48)井, (49)革, (52)艮, (53)漸, (55)豐, (56)旅, (59)渙, (62)小過, (63)既濟, (64)未濟.

48 Center for Open Data in the Humanities의 「蒙」(U+8499) 篆書字体データセット (<http://codh.rois.ac.jp/tensho/unicode/U+8499>) 참고.

몽(蒙)(méng)과 같다[尨 莫江反 又音蒙].”라고 했다.<sup>49</sup>



그림5-제4괘 몽(蒙)

## 2. 제5괘 수(需)

양시교의 고문역의 수(需)의 자형은 『설문』 우부(雨部)의 자형<sup>50</sup>과 상당히 유사하다.<sup>51</sup> 그러나 『상박주역』 및 『한간』의 자형과는 차이가 있다.<sup>52</sup> 『상박주역』에서는 가차자를 썼다. 서주 시기의 금문(金文)에도 양시교의 고문 자형과 유사한 자형이 있다. 복모좌(濮茅左)는 이 글자를 ‘자(子)’와 ‘이(而)’의 생략된 형태가 합하여 이루어진 ‘유(孺, rú)’자이며, 이 글자는 ‘수(需, xū)’로도 쓰인다고 했다.<sup>53</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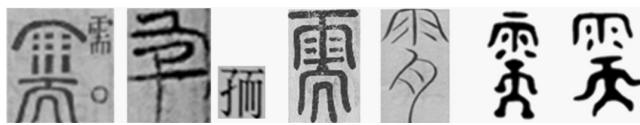


그림6-제5괘 수(需)

49 최남규, 『중국 전국시기 초나라 문자의 이해』(서울: 학고방, 2012), 78쪽.

50 Center for Open Data in the Humanities의 汗簡(<http://codh.rois.ac.jp/tensho/book/TE00005>) 참고.

51 <https://www.nj18.cn/show-39286.html>.

52 Center for Open Data in the Humanities의 「需」(U+9700) 篆書字体データセット(<http://codh.rois.ac.jp/tensho/unicode/U+9700/#TE00005>) 참고.

53 최남규, 앞의 책, 85쪽.

### 3. 제6괘 송(訟)

송(訟)은 편방 ‘언(言)’과 ‘공(公)’ 성(聲)으로 이루어진 형성자(形聲字)이다. 고문(古文)에서는 ‘송(訟)’자로 썼다. 양시교의 고문역의 송(訟)의 자형은 『상박주역』·『설문』<sup>54</sup> 혹은 『한간』 및 금문(金文)의 자형과 유사하다.<sup>55</sup> 특히 오른쪽 부분은 『상박주역』·『설문』·『금문』과 거의 같다. 서주만기(西周晚期)의 금문(金文) 집성(集成)의 송(訟)자도 양시교가 수집한 송(訟)자의 우측변의 자형과 같다.



楊時喬(訟)

上博

說文

汗簡



黹 處簋(西周晚期集成 4215)

揚簋(西周晚期集成 4294)

饋匱(西周晚期集成 10285)

그림7-제6괘 송(訟)

### 4. 제7괘 사(師)

양시교의 고문역의 사(師)자의 자형은 『설문』의 자형과 상당히 유사하며,<sup>56</sup> 『한간』의 자형과도 부분적으로 유사성이 있다. 그러나 『상박주역』의 자형에서는 통행본과 『설문』의 자형의 왼쪽의 ‘퇴(自)’가 없다. 『상박주역』의 자형(字形)은 청화간(清華簡)과 마찬가지로 ‘잡(市)’이다. 고문에서 잡(市)은 사(師)

54 <https://www.nj18.cn/show-33006.html>.

55 Center for Open Data in the Humanities의 「訟」(U+8A1F) 篆書字体データセット (<http://codh.rois.ac.jp/tensho/unicode/U+8A1F>) 참고.

56 <https://www.nj18.cn/show-31783.html>.

와 통한다.<sup>57</sup>



楊時喬(師)

上博(師)

說文

汗簡

그림8-제7괘 사(師)

### 5. 제8괘 비(比)

양시교의 고문역의 비(比)의 자형은 『설문』 고문의 자형,<sup>58</sup> 혹은 『한간』의 네 번째 자형과 상당히 유사하다.<sup>59</sup> 반면에 『상박주역』의 자형은 통행본 『주역』의 자형과 유사하다.



楊時喬(比)

上博(比)

說文·古文

汗簡

그림9-제8괘 비(比)

### 6. 제15괘 겸(謙)

양시교의 겸(謙)자의 고문 자형과 『상박주역』·『설문』·『한간』 등의 자형에 서 유사성이 발견되지 않는다.<sup>60</sup>

57 Center for Open Data in the Humanities의 「師」(U+5E2B) 篆書字体データセット (<http://codh.rois.ac.jp/tensho/unicode/U+5E2B>) 참고.

58 <https://www.nj18.cn/show-1661.html>.

59 Center for Open Data in the Humanities의 「比」(U+6BD4) 篆書字体データセット (<http://codh.rois.ac.jp/tensho/unicode/U+6BD4>) 참고.

60 Center for Open Data in the Humanities의 「謙」(U+8B19) 篆書字体データセット (<http://codh.rois.ac.jp/tensho/unicode/U+8B19>) 참고.



楊時喬(謙)

上博

說文·言部

汗簡

## 그림10-제15괘 겸(謙)

## 7. 제16괘 예(豫)

양시교의 예(豫)자의 고문 자형은 『설문』 상부(象部)의 자형과 상당히 유사하다.<sup>61</sup> 그리고 『한간』의 첫 번째 자형과도 유사하다. 『상박주역』의 자형은 상당히 다른데, ‘예(豫)’의 가차자이다.



楊時喬(豫)

上博

說文·象部

汗簡

## 그림11-제16괘 예(豫)

## 8. 제17괘 수(隨)

양시교의 수(隨)의 고문 자형은 『설문』 차부(走部)의 ‘수(隨)’의 자형과 상당히 유사하며,<sup>62</sup> 『한간』의 자형과 부분적으로 유사하다. 『상박주역』의 글자는 ‘수(隨)’와 같은 글자이며, ‘수(隨)’의 가차자로 보인다.

61 <https://www.nj18.cn/show-43824.html>.

62 <https://www.nj18.cn/show-33384.html>.



楊時喬(隨) 上博 說文·辵部 汗簡

그림12- 제17괘 수(隨)

### 9. 제24괘 복(復)

복(復)은 편방 ‘척(彳)’과 ‘복(复)’성(聲)으로 이루어진 글자이다. 양시교의 ‘복(復)’자의 고문 자형은 『설문』의 소전(小篆)의 자형과 유사하다.<sup>63</sup> 『상박주역』에서는 복괘(復卦) 육오(六五)의 효사에 편방 ‘착(乚)’(彳)자를 쓴 이체자(異體字)로 나온다. 『한간』의 자형과는 부분적으로 유사하다.



時喬(復) 上博 說文(小篆) 汗簡

그림13-제24괘 복(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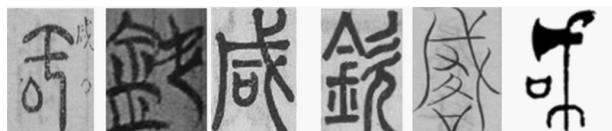
### 10. 제31괘 함(咸)

양시교 고문역의 ‘함(咸)’자와 유사한 글자는 『상박주역』·『설문』·『한간』에서 발견되지 않는다.<sup>64</sup> 그러나 이와 상당히 유사한 글자가 상대(商代) 만기(晚期)의 금문(金文)에 있다.<sup>65</sup> 패명의 ‘함(咸)’은 『상박주역』과 마왕토 백서본 『주역』에 모두 ‘흡(欽)’으로 되어 있다. 『상박주역』의 ‘흡(欽)’자는 『설문』의 ‘흡(欽)’자와 상당히 비슷하다.

63 <https://www.nj18.cn/show-9697.html>.

64 Center for Open Data in the Humanities의 「咸」(U+54B8) 篆書字体データセット (<http://codh.rois.ac.jp/tensho/unicode/U+54B8>) 참고.

65 <https://www.nj18.cn/show-37771.html>.



楊時喬(咸) 上博(欽) 說文(咸) 說文(欽) 汗簡(咸) 商代晚期(咸)

그림14-제31괘 함(咸)

### 11. 제32괘 향(恒)

양시교의 고문역의 ‘향(恒)’의 자형은 『상박주역』,<sup>66</sup> 『설문』 고문,<sup>67</sup> 『한간』<sup>68</sup> 등의 자형과 유사하지 않다. ‘향(恒)’의 고자(古字)는 “亘(gèn)”이다.



楊時喬(恒) 上博 說文·古文 汗簡

그림15-제32괘 향(恒)

### 12. 제33괘 돈(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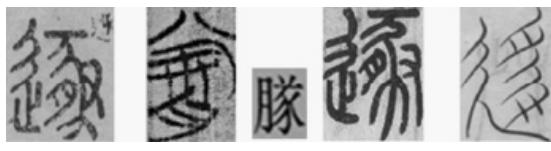
양시교 고문역의 ‘돈(遯)’자와 『설문』 착부(辵部)의 ‘돈(遯)’의 자형이 상당히 유사하다.<sup>69</sup> 『상박주역』의 자형은 돈(遯)의 가차자이다. 『한간』의 자형과는 편방이 유사하다.

66 馬承源(주편), 앞의 책, 40쪽.

67 <https://www.nj18.cn/show-12315.html>.

68 Center for Open Data in the Humanities의 「恒」(U+6052) 篆書字体データセット (<http://codh.rois.ac.jp/tensho/unicode/U+6052>) 참고.

69 <https://www.nj18.cn/show-7943.html>.



楊時喬(遯) 上博 說文·走部 汗簡

### 그림16-제33괘 돈(遯)

#### 13. 제47괘 곤(困)

양시교의 고문역의 곤(困)자는 『설문』 고문과 『한간』의 자형과 상당히 유사하다.<sup>70</sup> 그리고 『상박주역』과 『설문』 국부(口部)의 자형은 통행본 『주역』의 곤(困)자와 유사하다.



楊時喬(困) 上博(困) 說文·口部 說文·古文 汗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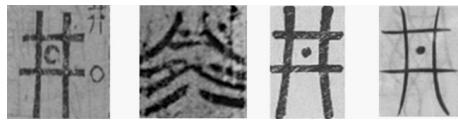
### 그림17-제47괘 곤(困)

#### 14. 제48괘 정(井)

양시교의 고문역의 정(井)자는 『설문』 정부(井部), 마왕퇴 백서본 주역, 『한간』의 자형과 일치한다.<sup>71</sup> 『상박주역』의 자형 '정(井)'자는 윗 부분은 우물 모양을 상형(象形)한 것이고, 아래 부분은 물(水)의 모양을 상형한 것이다. 『상박주역』의 '정(井)'자는 정(井)의 이체자로 볼 수 있다.

70 <https://www.nj18.cn/show-19199.html>.

71 <https://www.nj18.cn/show-16892.html>.



楊時喬(井) 上博(𦨇) 說文·井部 汗簡(井)

그림18-제48괘 정(井)

### 15. 제55괘 풍(豐)

양시교의 고문역의 풍(豐)의 자형과 『설문』고문의 자형의 윗 부분이 유사하다.<sup>72</sup> 그러나 『한간』의 자형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양시교의 고문 자형에서 아래 부분은 ‘두(豆)’의 자형으로 보기는 어렵다. 『상박주역』의 ‘풍(豐)’의 자형은 대체로 통행본 『주역』 ‘풍(豐)’의 자형과 일치한다.



楊時喬(豐) 上博 說文·古文 說文·豐部 汗簡

그림19-제55괘 풍(豐)

### 16. 제64괘 미제(未濟)

양시교의 고문역에서 ‘미(未)’자는 『상박주역』, 『설문』 미부(未部), 『한간』의 자형과 부분적으로 유사하다. 그리고 양시교의 고문역에서 ‘제(濟)’자는 『설문』 수부(水部)의 글자와 유사하다. 『한간』의 ‘제(濟)’자도 상당히 유사하다.<sup>73</sup> 그러나 『상박주역』의 ‘제(濟)’의 자형과는 유사하지 않다. 『상박주역』에서 미제의 ‘제(濟)’자는 ‘처(湊)’자로 되어 있다. ‘처(湊)’는 ‘제(濟)’의 가차자이다.

72 <https://www.nj18.cn/show-9116.html>.

73 Center for Open Data in the Humanities의 「濟」(U+6FDF) 篆書字体データセット (<http://codh.rois.ac.jp/tensho/unicode/U+6FDF>)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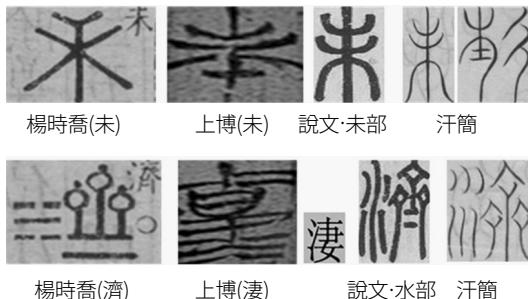


그림20-제64괘 미제(未濟)

이상에서 양시교의『주역고금문전서』에 나오는 고문 자형을『한간』,『상박 주역』,『설문해자』등의 세 종류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패명과 대조해 보았다. 그 결과 유사성이 관한 도표를 작성하면〈표1〉과 같다.

이상의 고문자료의 대조 및 비교를 통해 밝혀지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사고전서총목제요』에서는 양시교에 대해서도 두찬(杜撰)의 혐의가 있다고 말하면서, 곽충서의『한간』에서 사용된 고문자가 어디에서 유래되었는지를 알 수 없다고 했다. 이러한 서술은 마치 양시교의 고문자료가 곽충서의『한간』에 크게 의존해 있다는 인상을 준다. 그러나『주역고금문전서』를『한간』과 대조해 본 결과, 현저한 정도의 유사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곤(困)·정(井)·미제(未濟) 등 세 패에 그쳤다. 그리고 한간의 고문 자형은『설문해자』에서 취한 경우가 많고,<sup>74</sup> 위의 세 경우도『설문해자』에서 동일한 유사성이 발견되기 때문에, 양시교가『한간』에 의지하지 않고,『설문해자』에 의존했을 수도 있다. 따라서 양시교의 고문자가『한간』에서 유래된 것이라고 단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는 없다.

둘째,『주역고금문전서』과『설문해자』의 자형을 비교해 보면, 유사한 글자

74 王丹, 『『汗簡』·『古文四聲韻』新證』(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15), 16쪽.

표1-『주역』 패명 자형의 유사성 비교

卦序 (통행본)	卦名	『周易古今文全書』와 類似性		
		上博周易	說文解字	汗簡
4	蒙	×	×	×
5	需	×	○	×
6	訟	○	△	△
7	師	×	○	△
8	比	×	○	○
15	謙	×	×	×
16	豫	×	○	○
17	隨	×	○	△
24	復	×	○	△
31	咸	×	×	×
32	恒	×	×	×
33	遯	×	○	△
47	困	×	○	○
48	井	△	○	○
55	豐	△	△	×
64	未濟	×	○	○

\* ○: 유사성이 높음. △: 유사성이 부분적으로 있음. ×: 유사성이 적음.

가 많이 발견된다. 상당한 정도의 유사성이 발견되는 경우가 수(需)·사(師)·비(比)·예(豫)·수(隨)·복(復)·돈(遯)·곤(困)·정(井)·풍(豐)·미제(未濟) 등 11괘가 있고, 부분적 유사성이 발견되는 경우도 송(訟), 겸(謙) 등 2괘가 있다. 16괘를 비교해서, 11괘 이상에서 유사성이 관찰되었으므로 양시교가 허신의 『설문해자』에 의존하는 정도는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수(需)’의 경우에 『상박주역』 및 『한간』의 자형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으나, 『설문』 우부(雨部)의 자

형<sup>75</sup>과는 상당히 유사하다.

셋째, 『상박주역』은 전국시대의 출토 문헌이고, 현존하는 『주역』 가운데 가장 오래된 텍스트이기 때문에 큰 기대를 가지고 비교해 보았다. 그러나 양시교의 『주역고금문전서』과 『상박주역』 사이에 유사한 패명과 자형이 발견되는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았다. 송(訟)·풍(豐)의 두 경우가 그나마 유사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속한다. 『상박주역』은 패명(卦名)에서부터 가차자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그 자형이 통행본 『주역』과 일치하는 경우가 적다. 예를 들면, 제4괘 몽(蒙)은 몽(尨)이고, 제7괘의 사(師)는 잡(帀)이며, 제31괘의 함(咸)은 흄(欽)이며, 제38괘의 규(睽)은 규(睽)이며, 제48괘 정(井)은 정(湊)이며, 제64괘 기제(既濟)는 기처(既淒)로 되어 있다. 이러한 패명의 차이는 전국시대 초죽서(楚竹書)에서 가차자를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생겨났다. 가차자는 전국시대 뿐아니라 한대(漢代)에 예서체(隸書體)로 필사된 금문(今文) 『주역』인 마왕보 백서본 『주역』에서도 많이 사용되었다.<sup>76</sup> 양시교는 전국시대 문헌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던 가차자에 대하여 잘 몰랐기 때문에 통행본 『주역』에서 사용된 문자의 고문 자형을 찾아서 그것으로 고문 『역경』을 재구성해 넣었다. 그런데 출토된 『상박주역』과 양시교의 고문역을 대조해 본 결과, 그 자형의 일치도는 매우 낮았다.

넷째, ‘함(咸)’자의 경우에는 『상박주역』·『설문해자』·『한간』 등에서는 양시교의 고문 자형과 유사한 글자가 보이지 않지만, 상대(商代) 만기(晚期)의 금문(金文)에서는 발견된다. 이것은 양시교가 『설문해자』에 의존한 경우가 많기는 하지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그 밖의 고문 자료도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명대에는 전래된 고문자 자료를 수집하여 이

75 Center for Open Data in the Humanities의 汗簡(<http://codh.rois.ac.jp/tensho/book/TE00005>) 참고.

76 辛亞民, 「易卦卦名差異與『周易』古經編纂新探」, 『中國哲學史』2020-4(2020), 51~52쪽.

를 다시 쓰고 새겨서 자전(字典)으로 출간한 사례가 종종 있었다. 이러한 고문 자료를 전초고문자(傳抄古文字)라고 하는데, 명대 말기에 주운(朱雲)이 『금석 운부(金石韻府)』 같은 것이 대표적 사례이다.<sup>77</sup> 물론 『금석운부』는 명나라 숭정(崇禎) 13년(1640)에 간행되었으므로 생몰년이 1531~1609년인 양시교가 이것을 참조할 수는 없었다.

다섯째, ‘몽(蒙)’자의 경우에는 유사한 자형이 『상박주역』·『설문해자』·『한간』 등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에는 양시교의 고문 자형에 대한 신뢰도를 의심스럽게 만든다. 그렇다면 양시교의 고문역은 진정한 선진 시대의 문자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상의 대조 작업을 통하여 양시교의 고문 자형이 근거를 찾을 수 없는 경우는 매우 적었고, 『설문고문』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따라서 양시교의 고문 자형이 자의적으로 위조해 낸 것이라는 혐의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양시교가 활용한 고문 자료가 『상박주역』과 일치하지 않는 점은 일단 그것이 초계(楚系) 문자에 속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말해 준다. 그러나 전국시대의 육국문자 가운데에는 초계 문자만 있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양시교의 고문 자형이 육국문자 중에서도 초계가 아닌 다른 지역의 문자에서 유래된 것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현재 청동기 금문을 제외하면 초지역 외에 다른 지역에서 선진시대 간백(簡帛) 문자가 발견된 예가 거의 없기 때문에 양시교의 고문 자형이 육국 중에서도 초계가 아닌 다른 계통에 속하는지를 검증하기는 어렵다.

---

77 윤성훈, 앞의 책, 120쪽; 윤성훈, 「글씨로 그린 그림, 미수 허목의 매」, 한국고전번역원(<https://www.itkc.or.kr>).

## V. 맷음말

---

신후담은 『주역』의 고대적 원형을 복원하려는 양시교의 노력에 공감했다. 그는 양시교의 고문역이 나름대로 근거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았으며, 『주역고금문전서』 중에서 고문역에 해당하는 부분을 특별히 발췌하고, 거기에 자신의 안설(案說)을 첨부했다. 양시교는 역학사에서 철저히 무시당했던 존재였다. 『사고제요』에서는 『주역고금문전서』에 나오는 고문 자형이 양시교가 자의적으로 지어낸 것이 아닌가 의심했다. 특히 『한간』 등의 고문자료에 대해서 그것이 근거가 없다고 비판했다. 『사고제요』에서는 비록 양시교의 『주역고금문전서』가 『한간』의 자료를 이용했다고 특정해서 말하지는 않았지만, 전체적 맥락은 『한간』과 마찬가지로 『주역고금문전서』의 고문도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대에는 출토 문헌의 잇따른 발굴과 더불어 전통적으로 의심받던 『한간』 등의 고문자료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신후담은 양시교의 『주역고금문전서』에 나오는 고문 자형이 틀림없이 고대의 문헌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믿었다. 이 글에서 필자는 과연 신후담의 이러한 믿음이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양시교의 『주역고금문전서』에 나오는 고문 자형이 실제로 선진(先秦)의 자료로부터 유래된 것인지를 검증해 보고자 했다. 필자가 『설문해자』 및 최근 출토 자료들을 대조해 본 결과, 양시교의 고문 자형은 『설문』과는 일치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한간』 및 『상박주역』과 일치하는 경우는 매우 적었다. 특히 『상박주역』은 혼존하는 가장 오래된 『주역』이며, 심지어 비직(費直)의 시대보다 훨씬 더 이전의 전국시대의 출토자료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선진(先秦)시대의 역학자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시교의 『주역고금문전서』에서 『상박주역』과 일치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은 과연 양시교의 『주역고금문전서』가 선진시대의 『주역』에 얼마나 근접한 것인지를 의심하게 만든다. 양시교는 금본(今本) 『주역』의 자형에 상응되는 고

문 자형을 찾아서 그것으로 통행본 『주역』의 자형에 대체(代替)해 넣는 방법을 써서, 고문 『주역』을 재구성했다. 그러나 양시교는 고문 『주역』에서 가차자가 많이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재구성한 『주역』은 선진시대 고문 『주역』의 원형과 거리가 먼 것이 되고 말았다. 그리고 이것은 양시교의 시대적 한계이며, 동시에 신후담의 한계이기도 하다.

## 참고문헌

### 1. 1차 자료

- 顧炎武(저), 黃汝成(집성), 『日知錄集釋』,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6.
- 馬承源(주편), 『上海博物館藏戰國楚竹書(三)』,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3.
- 四庫全書存目叢書編纂委員會(편), 『四庫全書存目叢書』 經部8, 『周易古今文全書』 권 28, 濟南: 齊魯書社, 1997.
- 『四庫全書總目提要』.
- 慎後聃, 『河濱先生全集』 책3, 内篇(III) 권15, 『讀林塘楊氏時喬古今文易記疑』.
- 慎後聃, 『河濱先生全集』 책9, 『讀胡雙湖啓蒙翼傳識疑』.
- 楊時喬, 『周易古今文全書』 經部8-153, 『四庫全書存目叢書』 經部8, 濟南: 齊魯書社, 1997.
- 李光地(찬), 楊軍(점교), 『周易折中(上中下)』, 北京: 中華書局, 2022.
- 李光地(저), 신창호·김학목·심의용·윤원현(역주), 『주역절증』, 서울: 학고방, 2018.

### 2. 논저

- 강병수, 「하빈 신후담의 역학연구와 이해」, 『한국사상사학』 16, 2001.
- 강병수, 『하빈 신후담의 학문세계』, 서울: 다흘미디어, 2021.
- 김병애, 『하빈 신후담『주역상사신편』』, 서울: 고려대학교, 2016.
- 김혁, 「古文字 研究에 있어서 『說文解字』의 가치-甲骨文字考釋을 중심으로」, 『중국언어 연구』 103, 2022.
- 서진현, 「『설문해자』 고문의 자형 비교를 통한 사용시기 고찰」, 『건지인문학』 29, 2020.
- 오제중, 「청대의 『설문해자』 고문 연구에 관한 고찰」, 『중국언어연구』 33, 2010.
- 유명춘·강학위·낙위현(저), 심경호(역), 『주역철학사』, 서울: 예문서원, 1994.
- 윤성훈, 「미수 허목 수고본 전서 자전 기초 연구」, 『대동문화연구』 101, 2018.
- 윤성훈, 『미수 허목 고문서예 연구』, 서울: 서울대학교, 2019.
- 윤성훈, 「다산 정약용 행초서의 특징」, 『다산학』 43, 2023.
- 윤창준, 「설문해자 或體 중의 別字類 고찰」, 『중국학연구』 31, 2005.
- 임충군(저), 손홍철·임해순(역), 『정현의 주역』, 서울: 예문서원, 2021.
- 주백근, 『역학철학사 1』, 서울: 소명출판, 2012.
- 천웨이잔·당위밍(저), 강윤옥(역), 『중국고문자학의 이해』, 서울: 현학사, 2005.

- 최남규, 『중국 전국시기 초나라 문자의 이해』, 서울: 학고방, 2012.
- 최영애, 『한자학강의』, 서울: 통나무, 2006.
- 劉大鈞, 『周易概論』, #출판지역?: 巴蜀書社, 2008.
- 黃錫全, 『汗簡注釋』, 武漢: 武漢大學出版社, 1990.
- 王丹, 『『汗簡』·『古文四聲韻』新證』,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15.
- 郭忠恕, 『汗簡』, 李零, 劉新光 整理: 『汗簡·古文四聲韻』, 北京: 中華書局, 1983.
- 辛亞民, 「易卦卦名差異與『周易』古經編纂新探」, 『中國哲學史』2020-4, 2020.
- Nielsen, Bent, *A Companion to Yijing Numerology and Cosmology*, London: Routledge Curzon, 2003.

### 3. 기타

- 한국고전번역원(<https://www.itkc.or.kr>).
- 康熙字典(<https://www.nj18.cn>).
- Center for Open Data in the Humanities(<http://codh.rois.ac.jp/tensho/unicode>).
- 하버드-옌칭도서관 『주역고금문전서』 영인([https://iiif.lib.harvard.edu/manifests/view/drs:15322262\\$172i](https://iiif.lib.harvard.edu/manifests/view/drs:15322262$172i)).

## 국문초록

『독임당양씨시교고금문역기의(讀林塘楊氏時喬古今文易記疑)』는 신후담이 1748년(47세)에 양시교(楊時喬, 1531~1609)의 저서 『주역고금문전서(周易古今文全書)』를 읽고 남긴 독서기(讀書記)이다. 신후담은 『주역고금문전서』 중에서 고문역에 해당하는 부분을 특별히 발췌하고, 거기에 자신의 안설(案說)을 첨부했다. 양시교는 역학사에서 철저히 무시당했던 존재였으며, 『사고제요』에서는 『주역고금문전서』에 나오는 고문 자형이 양시교가 자의적(恣意的)으로 지어낸 것이 아닌가 의심했다. 그러나 신후담은 양시교의 『주역고금문전서』에 나오는 고문 자형이 틀림없이 고대의 문헌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믿었으며, 『주역』의 고대적 원형을 복원하려는 양시교의 노력에 공감했다. 이 글에서 필자는 과연 신후담의 이러한 믿음이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양시교의 『주역고금문전서』에 나오는 고문 자형이 실제로 선진(先秦)의 자료로부터 유래된 것인지를 검증해 보고자 했다. 필자가 『설문해자』 및 최근 출토 자료들을 대조해 본 결과, 양시교의 고문 자형이 자의적으로 조작한 두찬(杜撰)은 아니며, 많은 경우 『설문해자』에 나오는 고문의 자형과 일치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양시교는 고문 『주역』에서 가차자(假借字)가 많이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재구성한 『주역』은 선진시대 고문 『주역』의 원형과 거리가 면 것이 되고 말았다. 그리고 이것은 양시교의 시대적 한계이며, 동시에 신후담의 한계이기도 하다.

투고일 2024. 2. 28.

심사일 2024. 4. 16.

제재 확정일 2024. 5. 9.

주제어(keywords) 양시교(楊時喬, Yang Shiqiao), 주역고금문전서(周易古今文全書,

Zhouyi Gujinwen Quanshu), 신후담(慎後聃, Sin Hudam),

독임당양씨시교고금문역기의(讀林塘楊氏時喬古今文易記疑, Du Lintang Yangshishi qiao Gujinwenyi jiyi), 고문역(古文易, Guwenyi: Zhouyi in ancient characters)

## Abstract

Sin Hudam's Understanding of Yang Shiqiao's Guwenyi (*Zhouyi* in ancient characters): Sin Hudam's *Du Lintang Yangshishiqiao Gujinwenyi jiji* and Yang Shiqiao's *Zhouyi gujinwen quanshu*  
Bang, In

*Du Lintang Yangshishiqiao Gujinwenyi jiji* (讀林塘楊氏時喬古今文易記疑) is a reading record written by Sin Hudam after reading Yang Shiqiao's *Zhouyi gujinwen quanshu* (周易古今文全書, *Complete Writings of the Zhouyi in the Ancient and Present Period*). Sin Hudam excerpted some parts of *Zhouyi gujinwen quanshu* and attached his own commentary. Yang Shiqiao had been so thoroughly ignored in the history of *Zhouyi* interpretation and the author of the *Bibliography of Complete Collection of Four Treasures*(四庫全書總目提要) suspected that the ancient form of Chinese characters in *Zhouyi gujinwen quanshu*(周易古今文全書) was an arbitrary invention of Yang Shiqiao. However, Shin Hudam believed that the Guwen (古文, ancient writing) was undoubtedly based on ancient texts, and he sympathized with Yang Shiqiao's efforts to restore the original *Zhouyi* of the ancient period. The current study verified whether Sin Hudam's beliefs could be justified and whether the ancient form of the Chinese characters was indeed derived from pre-Qin (先秦) ancient sources. After comparing Xu Shen's (許慎) *Shuowen Jiezi* (說文解字) and some recent excavations with Yang Shiqiao's Guwen (古文, ancient writing), this study confirms that the ancient characters in Yang Shiqiao's *Zhouyi gujinwen quanshu* are not arbitrary fabrications and that in many cases, it matches with the ancient Chinese characters found at *Shuowen Jiezi*. However, Yang Shiqiao was unaware that the loan words (假借字) were widely used, so his reconstruction is far from the original *Zhouyi*. This is a limitation of Yang Shiqiao's time, and, at the same time, Sin Hudam's limitation.